

공정방송 깃발아래 전국이 하나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총파업특보 2호

발행인 김연국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7년 9월 4일

총파업 돌입 MBC 재건 시작됐다

전국 18개 지부 출정식...오후 총집결

언론노조 문화방송노조는 2017년 9월 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포함 전국 18개 지부 조합원 1천8백여 명이 예외 없이 한 뜻으로 파업에 동참한다. 95.7%의 역대 최고 투표율, 93.2%로 역대 최고 파업 찬성률이다. 편성PD 30여 명과 송출 담당자 등 이른바 방송 필수 인력까지 파업에 동참해 역대 가장 강력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사내 식당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로 구내식당 운영도 사상 처음으로 오늘부터 폐쇄된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 가장 강력한 파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합법 투쟁으로 공정방송 쟁취

우리의 목표는 간명하다. 공정방송이다. 이를 위해서는 MBC를 망친 주범 김장겸의 즉각 퇴진이 필수적이다. 노동법과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공영방송 MBC의 수장으로 있는 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바닥으로 떨어진 MBC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랑스러운 MBC의 옛 모습을 되찾으려 한다.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의 해임도 하루가 급하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왜곡, 편파 방송을 관리 감독하기는커녕 불법을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겨 왔다. 우리는 김장겸, 고영주를 비롯한 공범자들을 합법적인 투쟁으로 몰아내고, 국민과 시청자를 위한 방송을 재건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다.

문화방송노조 서울지부는 오늘 오전 10시 상암동 MBC 사옥에서 출정식을 열고 5년만의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지역사 17개 지부도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

공영방송 MBC 파괴의 주범이자 언론적폐의 장본인, 김장겸의 운명이 드디어 끝을 향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김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조사와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고도 4~5차례나 일방적으로 불응했기 때문이다.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 그 사이 수사당국은 김 사장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현직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김 사장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수사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조사 이후 김 사장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조만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1일 오후, 제 54회 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언론적폐 세력들의 수상을 축하하고 있던 김 사장은 영장 발부 직후 취재진들을 피해 황급히 출행을 했다. '즉각 퇴진하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언론 적폐 세력의 운명이 다해가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역대 최고 강도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김장겸과 그 부역자들이 퇴진하는 날까지 총력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전조합원이 총파업으로 뭉쳐, 김장겸 뿐 아니라 김재철과 안광환, 백종문, 최기화 등 지난 9년 MBC를 파괴한 적폐 일당들도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말 것이다.



‘필수인력’ 예외 없다

“사상 최고 강도 파업”

‘파행 장기화’ 여부, 오로지 사측에 달렸다

지난 2012년 파업 당시만 해도 ‘파업동참 예외 기준’이란 게 있었다. 일종의 노사 간 ‘신사협정’이었다. 주조와 송출 등 방송 필수인력은 파업 중에도 현장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파, ‘블랙아웃’이라는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5년 전 170일 파업 당시에도 방송 ‘송출’은 단 한 순간도 끊긴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파업지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파업 대상이 전 조합원으로 확대됐다. ‘예외’는 없다. 총파업 찬반 투표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과 사상 최고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찬성 1568표, 찬성률 93%, 노동조합은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예고했다. 동시에, 노동조합 3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도의 파업이 될 것이다. 주조와 송출은 물론, 재무 회계, 인사, 편성과 광고 등 이전엔 ‘파업동참 예

외’에 속했던 분야의 조합원들이 전부 파업 대오에 함께 선다.

회사는 파업 투표가 진행되던 막바지인 지난달 29일 노조에 공문을 보냈다. “주조, 송신 등 필수인력을 유지하여 최소한의 방송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방송을 하는 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MBC 모든 구성원의 국민에 대한 책무”라는 이유를 들었다.

묻고 싶다. 정상적인 방송을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세월호’와 ‘위안부’는 금기어였고, 유족들이 흐느끼는 모습은 편집됐고, 자사 프로그램인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뉴스 데스크>에서 난도질했다. 촛불은 끄고 태극기는 더욱 펄럭인 MBC는 더 이상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안 될 친구’가 되었다. 방송 사유화에 골몰해온 사측이 이제 와서

‘국민에 대한 책무’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방송 종사자에게 ‘정파’는 금기의 영역이었다.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는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고 절박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MBC는 이미 김장겸 일파의 ‘사회적 흉기’가 돼버렸고, 국민을 저버린 ‘사실상 정파’, 아니 ‘컬러 바’만도 못한 불공정 방송만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MBC 조합원들은 그 누구도 방송 파행과 정파를 바라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언제나 즉시 업무 현장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방송’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파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선명하고도 간단하다. 김장겸 일파가 즉각 퇴진하는 길만이 초유의 정파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파행 장기화여부는 오로지 사측에 달렸다.



A매치서 울려 퍼진 ‘김장겸 물러나라’

스포츠취재부



스포츠 기자들의 경기장 투쟁은 계속됩니다

목표는 하나였다. 사비를 들여 제작한 티셔츠, 손필침막, 대형 플래카드를 중계 방송에 최대한 노출시키겠다는 것.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지만 경기전 관중들에게 회사 노보를 나눠줄 때부터 우리는 무전기를 든 보안요원들의 감시대상이 됐다. 관중석에 앉자마자 준비했던 플래카드를 회수당했고, 티셔츠도 벗어야만 했다. 무기를 통째로 뺏긴 폐잔병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 이란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작전 실패를 절감하고 플래카드 제작비 본전이라도 뽑자는 단순한 생각에 우리는 경기 종료 5분전 경기장을 떠나 광장으로 내려갔다. ‘돌아와요 마봉춘’이라 적힌 티셔츠를 입고 대형 플래카드도 펼쳤다. 그런데 이때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광경이 펼쳐졌다. 경기 후 쏟아져 내려오는 구름 관중들이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힘내라”, “마봉춘 파이팅!”, “MBC를 응원합니다”를 외쳐주신 분들, ‘모금함 따로 없냐’고 힘을 보태고 싶다고 하신 분, 같이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 육포를 손에 쥐어주신 분 등 많은 시민들이 작전 실패라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 같았다. 김민식 선배의 유행어 “김장겸은 물러나라!”를 선창해주신 분들도 많아서 우리는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됐다. ‘아!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MBC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많은 빛을 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우리는 시민들이 불어넣어주신 힘을 동력으로 이제 2차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야구장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있는 스포츠 현장에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알릴 것이다. 말할 것이다. 김장겸을 몰아내고 제대로 된 MBC뉴스로 찾아뵙겠다는 것을.





적폐들로 얼룩진 방송의 날

유리잔들이 와장창 깨졌다. 경호 인력에 밀려 발을 밟힌 기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체포영장 발부 속보가 전해진 직후 김장겸은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무대 뒤로 뛰쳐나갔고 이를 쫓던 기자들은 경호 인력에 힘껏 밀렸다. 한 마디로 아수라장. 10년 만에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적폐가 적폐에게 상을 준다

2017년 9월 1일 오후 5시, 63빌딩 4층 라벤더홀에서 열린 이 행사는 ‘적폐가 적폐에게 상을 주는 자리’였다. 언론 적폐들이 각각 회장(KBS 고대영 사장)과 부회장(MBC 김장겸 사장)을 나눠 맡은 한국방송협회는 신동호 아나운서국장과 김수정 홍보국장을 표창했다. 신동호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품격있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전문 앵커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역할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아나운서 12명을 퇴사의 길로 내몰고 11명을 부당전보했으며, 자신이 진행하는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청취자의 항의가 잇따르자 청취자 게시판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으로 응수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수상 이유다. 적폐 사장들의 입노릇에 충실했던 김수정 홍보국장의 표창 이유 역시 황당하다. “웨이

보와 위챗 계정 개설”, 즉 중국 SNS서비스에 MBC 공식 계정을 만들어 한류 확산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부역자들은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방송협회의 적폐 표창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목포MBC 박영훈 기자는 당당히 무대에 올라, 아련하고도 익숙한 손떨침막을 들었다. ‘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가 적힌 2012년 파업 당시, 그 펼침막이다. 김장겸의 얼굴이 굳었다.

체포영장 발부 직후 김장겸 줄행랑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읽었다. 단상 맞은편에 김장겸이 앉아 있었다. “방송의 주인은 정부도 방송인도 아닌 시청자인 국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년간 이 중요한 사

실을 방송인 스스로 외면하지 않았나 성찰해야 합니다.” 김장겸은 앉은 자리에서 뒷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집중하지 않았다. 축사는 이어졌다. “많은 방송인들이 언론 독립을 지키기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내려놓고 현장을 떠나 있습니다. 하루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이 정상화되어 이들이 본연의 자리에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축사가 끝났다. 참석자들은 약 6초간 박수를 쳤는데 김장겸의 박수는 3초만에 끝났다. 그리고 곧바로 체포영장 발부 속보가 행사장에 전파됐고 김장겸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기자들은 “퇴진할 생각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고용노동부 소환에 왜 응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김장겸은 63빌딩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몸을 숨겼다. 김장겸이 깨트린 유리잔들이 바닥을 뒹굴었다.

김장겸은 사라졌고 기자들은 철수했다. 어수선해진 행사장에서 김장겸 가방 들어주러 왔을 송윤석 비서실장은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다가 황망해진 얼굴로 퇴장했고, PD와 작가들 책상을 뒤지는 기행을 일삼으며 PD수첩 망가트린 대가로 원주MBC 사장이된 김철진은 사태 파악이 안된 듯 누군가와 말을 섞으면서 시시덕거렸다. 9월 1일, 제 54회 방송의 날이 그렇게 저물었다.

특별기고

MBC를 망친 공범자들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정대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9기 수석부위원장

우리는 그런 자를 처음 봤다. 과거 수많은 사장을 대면했지만 MBC 구성원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힘들었던 함량 미달의 사장은 그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 언행은 지극히 가벼워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손발이 오그라드는 끔찍한 경험을 되풀이해야 했다. 김재철. 그 자의 등장이 당시에는 작금의 참혹한 현실의 시작임을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돌이켜보면 김재철은 정권의 수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MB는 대한민국을, 김재철은 MBC를 철저히 망쳐 놓았다.

김재철의 '김재철들', 전국 패악질

이런 자를 돕고 추앙하는 세력이 우리 자랑스러운 MBC 조직에 얼마나 있었는가 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어느 시대에도 기생했던 반역의 무리들은 MBC에 차고도 넘쳤다. 누구보다 정치적이고 시대착오적 이념에 매몰된 자들이 노동조합을 편향된 세력이라 칭하며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방송의 공정성 말살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에게 영혼을 팔라며 회사의 돈과 자리를 미끼로 던지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이를 덩석 문 자들이 줄줄이 보직을 거쳐 지역의 사장 자리를 꿰차고 똑같은 짓을 저질러 왔다. 진주-창원MBC 강제 통폐합의 사례에서, 지역MBC 광고배분 문제에서, 지역MBC 주총 정관 개악에서 지역MBC 사장이란 자들이 지역의 이익과 존립에 배치되는 행보를 너무도 당당하게 이어왔다. 서울을 정점으로 전국에 뿌려진 거만하고 몰염치하며 자리보전에만 혈안이 된 전국의 김재철들의 패악질을 어떻게가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170일 파업 질기고 독한 MBC정신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전무후무할 2012년 170일 최장기 파업은 서울 조합원들의 선도 파업 이후 지역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가 배가 되면서 전 조합원 총력 투쟁으로 폭발했다. 서울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들은 그 긴 시간을 길거리에서 묵묵히 혹은 소리 높여 국민께 호소했다.

“MBC를 국민의 품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당시를 버틸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른 사업장에선 엄두도 낼 수 없는 최장기 파업을 질기게 이어갈 수 있었을까? MBC 노동조합의 전통이라고 혹자는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최고’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부문에서 그랬다. MBC가 하면 표준이 되고 그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넘쳐났다. 보도든 예능이든 드라마든 라디오든 기술적인 부문이든 MBC는 세련되고 재미있었고 유익했다. 지역MBC도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의 명실상부한 대표방송사다. 우리가 만들었던 MBC는 그랬다. 이걸 저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이 망쳐 놓았다. 우리 가슴 속에 넘쳐났던 최고의 자부심을 짓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분루를 삼키는 동안 저들은 보란 듯이 MBC를 삼류 방송으로 전락시켰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김재철 후예들, 철저히 단죄한다

이제 다시 나선다. 김장겸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김재철을 정점으로 그 자의 후예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을 깨끗이 정리한 후 다시 국민에게 1등 방송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파업의 이유다. 5년간 우리는 무기력했던 것이 아니다. 보다 더 정교하게 저들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오랜 세월 칼을 갈아왔을 뿐이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들에 대한 일체의 관용을 허하지 않는다. 우리는 MBC를 망친 부정한 자들을 철저히 단호하게 단죄할 것이다. 다시는 MBC에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번 파업을 통해 분명한 이정표를 세우려 한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반드시 MBC역사의 자랑스러운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